

# 마음 열기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시다.

나에게 있어 가장 질리지 않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 말씀 나누기 민수기 11장 1-6절, “지금도 은혜가 내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물게 하신 후에 다시 행진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 생활에 익숙해졌고, 다시 광야 길을 걸어야 하는 것에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과 원치 않는 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실력을 키우시며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며 광야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손에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 마저도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찾고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헛되고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탄식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과거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강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고, 고된 노동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일한 대가로 얻어먹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면, 만나와 같은 참되고 영적인 은혜는 우

습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세상의 헛된 것이 좋게 보이는 영적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값없는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희생과 대가를 먼저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먼저 구원과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만나는 항상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애굽의 것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하찮게 여길 정도로 맛과 영양이 부족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의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맛없고 하찮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며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가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져서, 그 은혜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원망할 때에도, 만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진노의 불도 진영 끝에만 타올랐고, 그마저도 모세의 간구로 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 입맛과 원망불평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맛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 말씀으로 나아가기

##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나는 지금 무엇에 '길들여져' 있나요? 세상의 맛인가요? 하나님 은혜의 맛인가요?
2. 당시에는 고난이었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3.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2. 세상의 것에 치우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시다.
3.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에 길들여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 신앙백과\_ “용서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나에게 깊은 상처와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성경은 분명 타인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고 따뜻합니다. 성경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야”라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너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아닌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점은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통해 먼저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결정하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무엇이 다를까요?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하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화해의 문을 열어두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 기독교 상담가 딘 알렌더는 “용서는 빛을 탕감해 주되, 진정한 회개를 할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용서는 내 마음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지만, 화해는 상대방의 반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화해 또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로 응답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위해 용서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도 나에게 다가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따금씩 듣거나 하게 되는 말 중에 “절대 용서 못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서운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작게,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크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 아래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나의 죄가 훨씬 더 크고 무거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상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용서와 화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죄의 빛을 대가 없이 탕감해 주셨음을 믿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을 붙들고 있을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값싼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이 입힌 고통과 수치를 내가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쓴 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 삶”,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4월 12일

# 지금도 은혜가 내리고 있다

민수기 11장 1-6절

